



전북 양성평등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역량강화교육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2~8일 '2024 전북 양성평등도민 모니터링단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2022년부터 도민들이 직접 도내 시설 및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에서 개선안을 도출하는 활동으로 올해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주제로 삼은 집합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참여자를 모집, 지원서류 심사 및 사전교육을 거쳐 총 28명의 모니터링단을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문화·관광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전북도민으로 구성되었다. 모니터링단은 도민 분과(만 39세 이상)와 청년 분과(만 39세 이하)로 활동한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도민 및 청년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고취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문화 분야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확산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민축구단 3연승

홈에서 당진에 3대 1 대승... K4리그 2위 도약



전주시민축구단이 3연승으로 K4리그 2위에 올랐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일 전주대우동장에서 열린 '2024 K4리그 7라운드' 당진시민축구단과의 홈경기에서 심요셉의 멀티 골과 용환빈 골에 힘입어 3대 1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를 거둔 전주는 리그 3연승을 달리며 승점 12점(3승무패)으로 리그 2위에 랭크됐다. 전주는 경기 초반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회를 찾았고 전반 6분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양태열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롱 패스한 공을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용환빈이 헤딩한 공이 상대 골망을 흔들면서 1대 0으로 앞서 갔다.

이후 당진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주는 수비에서 공격을 차단하며 전반을 1대 0으로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주는 골을 넣기 위해 심요셉과 박배근을 투입했지만, 후반 10분에 당진 서도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이후 양팀은 승리를 위해 선수교체를 시도, 당진은 후반 16분에 구현우와 이재훈을 투입했고, 전주는 바로 신원호와 김도형을 투입하면서 상대 골문을 노렸다. 후반 31분 심요셉의 발에서 역전골이 나왔다. 심요셉이 상대 오른쪽에서 받은 공을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상대 수비를 허물고 슛 한공이 상대 골망을 갈랐다. 이어 10분후에 썬기골이 나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씨름부, 전국대회 대학부 단체전 우승

전주대학교 씨름부는 최근 증평군 종합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제2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씨름대회 대학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팀을 우승으로 이끈 임종길 감독은 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전주대 씨름부는 단체전 준결승에서 울산대를 4:2로 제압하고, 결승에서 영남대와 접전을 벌였다. 첫 판에서 강현우 선수가 연이은 잡채기를 성공시키며 한 점을 따낸 전주대는 두 번째 판에서 상대에게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내 세 번째 판에 출전한 홍지원 선수가 연이은 밀어치기로 상대를 제압하며 2:1로 앞섰고, 흐름을 탄 유원 선수가 네 번째 판까지 잡아내며 승기를 거머쥐었다. 다섯 번째 판에서 상대 전적 2점 차가 남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영남대에서 잠시금 차승민 선수를 선택해 한 점을 만회했지만, 여섯 번째 판에서 유희승 선수가 승리를 거두며 전주대가 대학부 단체전 우승을 했다. 앞서 열린 대학부 개인전에서는 홍지원(생활체육학과 4년) 청장급(-88kg 이하) 1위, 유원(생활체육학과 2년) 용장급(-90kg 이하) 2위, 박정훈(생활체육학과 3년) 용장급(-95kg 이하)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임종길 감독은 "전주대 개교 60주년을 맞아 학교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운봉읍 지사협, 밀반찬 지원 확대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장수호 이하 협의체)는 거동 불편을 요리가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 풍부한 밀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2021년 시작해 월 2회 밀반찬을 지원하고 인부를 확인해 왔으며, 올해에도 협의체 회의를 통해 5월 1일부터 30가구에서 40가수로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봉사단은 운봉읍의 여성이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회 등 4개 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산 노인복지센터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단체 회원들은 "이번 확대 지원으로 주민들이 영양 풍부한 밀반찬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3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성료

고창군이 지난 3~5일 상하농원과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3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는 전국의 탐조인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을 무대로 철새를 직접 관찰하며 사진을 찍는 탐조대회다. 전국에서 모인 탐조인 총 82개팀 124명이 참여하여, 2박 3일간 고창군에 서식하는 다양한 철새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으며 선의 경쟁을 펼쳤다. 행사 첫날인 3일 사전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은 4일 새벽부터 고창갯벌·운곡습지·선운산 등 고창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탐조활동을 펼쳤다. 특히 초보 탐조인을 위한 기초 교육을 통해 모든 참여자가 쉽고 재미있게 탐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참가자들이 제출한 탐조기록 심사를 통한 빅버드레이스 시상식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탐조기록 성과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다양한 테마의 상을 준비하여, 폭넓은 참여자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회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조류를 관찰한 △ 탐조가족 탐 탐이 대상을 거머쥐었고, △ 최우수상 '기보새' △ 우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상 탐조일지, '잡새터미' △특별상 '호반새', '새랑갯벌이랑' △멋쟁이새 으름상 '도토리 자연학교', '쫄모닝' △희귀 새상 '홍패말리', '고창새사랑동호회' △갯벌키퍼상 '종아요' △가쪽으뜸상 '제주전교리딱새', '여기보새' △외국인 으름상 '육친뽕뽕' △산년고 바다건너상 '울퉁이네' △최연장자 참가상 '새랑갯벌이랑' △최연소 참가상 '포포네' △고창새사랑 '은진유이네', '은재의생인경', '빈솔'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건강특목 건강백세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읍·면·동 경로당 389개소에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특목, 건강백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질병예방, 조기검진, 적기 치료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을 연 2~3회 방문, 6개 건강영역(방문건강, 치매예방, 통합건강 구강보건, 한방건강, 정신건강) 사업을 전문인력(의사, 한의사, 간호사, 운동지도사 등)과 통합 연계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 내용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기초건강체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방세동 선별검사) 및 건강상담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 교육 △신체활동 및 영양 급원, 질주 등 통합 건강증진 교육 △구강검진 및 구강관리교육 △중풍 예방교육 △우울증 선별검사 및 관리교육 등이며, 임극복 캠페인, 사전연명의료제도 홍보와 계절별 건강관리(폭염, 한파, 대설 등) 대응 교육을 방문건강 관리서비스와 병행할 계획이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 친화적 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과 건강환경을 조성,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반딧불복분자영농조합,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반딧불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7일 (재)무주군교육발전추진재단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장병주 대표는 "지역발전으로서 무주 인재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공부하고 무주발전으로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반딧불복분자영농조합법인은 청정 복분자 재배, 가공과 유통 연구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된 곳으로 52명의 회원들이 함께 복분자 집단체배와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 도통동, 춘향제 한복입기 실천 다짐대회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는 지난 7일 동 3층 회의실에서 봉정회의에 참석한 봉정동 포함 직원들 60여명이 '제94회 춘향제 7일 동안 모두가 한복입기 동참해요~!' 라는 슬로건으로 춘향제 한복입기 실천 다짐 대회를 가졌다. 다짐 내용으로는 △춘향이 몽룡이 그네타며 봄비땀 살랑이던 5월의 그 시절, 우리 전통의상과 장복속에 있는 잠자는 한복을 꺼내어 입어보자! △1년에 단 1주일 모두가 한복을 입고 춘향제를 물들여 보자! △함께하는 춘향제를 즐겨보자! 마음껏 놀아보자! 라는 내용 등이다. 이거구 봉정협의회장은 "한복을 꺼내어 입고 봉정회의에 참석해 한복입기 실천 다짐 대회를 하게 되니 예전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난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도통동장은 "역사와 전통문화를 느끼고, 자신만의 색으로 표현하는 전통성 있는 글로벌 축제, 형형색색 글로벌 춘향제가 시민을 위한 더 특별한 축제로 춘향제



가 100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춘향제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춘향제로 발전하였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 16가구에 사랑의 카네이션 전달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7일부터 따뜻한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홀로 사는 어르신 16가구에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행사는 현재 시책 사업으로 진행 중인 '인간 가구 1:1 사랑 나눔 고리' 사업 대상 어르신 가구에 도통동장과 자원봉사자가 방문해 카네이션 화분을 전달하고 정경계 답사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카네이션 화분은 사랑의 꽃집(대표 서연숙)에서 지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네이션을 받으신 어르신은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집에서 사람의 웃음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카네이션을 보고 오늘을 떠올리며 위로와 기쁨을 느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사랑의 꽃집에 감사하며, "홀로 어르신에게 작은 화분 하나이지만 따뜻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9일 연극 '작은할머니' 공연 선보여

진안군은 오는 9일 오후 3시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연극 '작은할머니' 공연을 선보인다. 연극 '작은할머니'는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 등 파란만장한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전혀 다른 시대를 겪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다. 연극은 2018년도에 주부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서대문구 '주부극단 모정'이 배우로 나섰다. 이들은 '우동 한 그릇', '비비장전'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따뜻하고 재미있는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23 서울 시민 연극제'에서 '작은할머니'로 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이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선보이는 '작은할머니' 공연은 평소 연극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 분들도 감명 깊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김제시-완주군 공무원노동조, 고향사랑 상호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완주군 공무원노동조(위원장 김성곤)가 7일 김제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35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날 11일 김제시 공무원노동조위원장 안용주가 완주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350만원 기탁에 대한 상호 교차기부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 공무원노동조와 완주시 공무원노동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을 위한 미중용 역할을 해야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였으며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기로 했다. 김성곤 완주군 공무원노동조 위원장은 "이번 상호 기부가 완주김제 상생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청소년센터, 가정의 달떡케이크 만들기 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4일 관내 청소년 60명과 함께 김제시청소년종합센터 요리실습실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철 과일을 이용한 떡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제시청소년종합센터와 민경·금산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자칫 지루하기 쉬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매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접수 첫날 마감 이 될 정도의 인기가 많다. 청소년들은 우리지역에서 만든 쌀과 제철 과일을 이용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직접 만든 떡케이크 및 감시함을 담은 손편지를 쓰는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동시에 때때의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며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시효연 가족복지과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일 떡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과 대화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